

라오디게아 - 두 번째

개신교의 뿔

Jeff Pippenger

2023-08-27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려 드러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뿌리와 전개, 그리고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개혁의 역사 속 세 가지 핵심 축은 성경 자체, 성경을 연구할 때 사용해야 할 올바른 방법론, 그리고 그 역사 전반에 걸쳐 선택된 사자들이 그 역사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다룬다. 늘 그렇듯이 사탄은 여러 가짜로 킹 제임스 성경을 감추려 했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도 여러 가짜로 숨기려 했으며, 또한 그 역사 진행 과정에서 일으켜 세워진 올바른 사자들(이정표)까지도 숨기려 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른 모든 개혁 운동에서 늘 시도해 왔던 바로 그 일을 시도했다—참된 사역 대신 가짜를 그들에게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기독교회 첫 세기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16세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대쟁투, 186.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밀러파 역사에서, 미국으로 상징되는 땅의 짐승의 두 뿔 가운데 하나인 개신교의 사명을 밀러파 재림운동이 이어받아 개신교의 뿔이 되었다. 동시에, 이전에 자신들이 개신교라고 공언했던 교회들은 배도한 개신교가 되었고, 밀러파가 그들을 지칭한 대로 “로마의 딸들”이 되었다. 1843년에 개신교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무너졌고 밀러파는 개신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갔다. 밀러파의 역사는, 자신의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이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었다.

조사 심판의 개시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안식일에 대한 시험을 가져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암흑시대 동안 교황권의 전통과 관습 아래 묻혀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신교인들을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로 이끄시어 엘리야의 시험을 제시하셨는데, 윌리엄 밀러가 그 엘리야의 예형이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밀러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로마로 되돌아갔다. 밀러가 전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시험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로 예표되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18:21.

1840년에 밀러와 첫째 천사로 대표된 엘리야의 메시지에 직면했을 때, 개신교인들은 바알을 택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Thyatira 교회로 대표되는 역사 속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된 “새벽별”로 시작된, 성경 진리들의 봉인이 풀리는 일이었다.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수세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특히 Waldensians의 역사와 함께 The Great

Controversy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1930년, Benjamin Wilkerson는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 책은 궁극적으로 King James Bible 번역에 사용된 거룩한 원문들에 맞선 전쟁과, 가톨릭, 배교한 개신교, 그리고 Laodicean Adventists에 의해 과거에도 지금도 옹호되어 온 다양한 사탄적 위조 본문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전쟁은 Waldensians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1611년 King James Bible로 번역된 올바른 사본들의 중요성을 증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이정표이자 상징이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의 제작은 매우 구체적인 번역 과정을 거쳤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과정은 일곱 단계의 제작을 통해 완성되었다. 또한 이를 완수하는 데 7년이 걸렸는데, 성경적 7년은 2,520일이다. 이는 물론 다니엘 9장을 성취하시며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예언적 날수와 같다. 그 거룩한 한 주간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 일곱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인에 의한 초기 번역: 약 50명의 번역가들이 여섯 개의 위원회로 나뉘었으며, 각 위원회는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을 맡았다. 이들은 원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 둘째: 위원회 검토: 각 위원회가 맡은 부분의 번역을 마친 후, 해당 작업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직접 검토했다. 이는 집단적인 의견 수렴과 오류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셋째: 총위원회 검토: 개별 위원회의 번역본은 그 후 '총위원회'라고 불리는 더 큰 학자 그룹에 제출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섯 개 번역위원회 각각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전체 작업을 검토하면서 서로 다른 위원회 번역본을 비교하고 조화시켰다.
- 넷째: 추가 검토 및 수정: 총위원회의 수정본은 추가 검토와 보완을 위해 각 위원회로 다시 전달되었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번역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다섯째: 최종 검토 및 승인: 각 위원회가 수정 작업을 마친 후, 최종 초안은 최종 검토와 승인을 위해 총위원회에 제출되었다.
- 여섯째: 왕실 재가 및 출판: 승인된 번역본은 이어 제임스 1세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
- 일곱째: 그가 왕의 재가를 내리자, 그 번역본은 1611년에 성경의 킹 제임스 역(공인역)으로 출판되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라. 흠으로 만든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같이, 일곱 번 정련되었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6, 7.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여러 사자들이 대표해 보여 준 이정표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올바른 방법론에 맞서 벌이는 전쟁 가운데,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은 시편 12편에서 특별히 지목된 하나의 이정표이다. 변질된 가톨릭 사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갖가지 위조 성경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시편 12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곱 단계에 걸친 정결의 과정과 2,520일의 기간은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킹 제임스 성경을 자신의 순수한 말씀으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를 포함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사용한 "역사주의" 방법론을 지지하고 유지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14세기에 The Great Controversy라는 책에서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로 지칭되는 존 위클리프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보통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운 전령이다.

와이클리프가 시작한 위대한 운동은 양심과 지성을 해방하고, 오랫동안 로마의 개선 수레에 속박되어 있던 나라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근원은 성경에 있었다. 여기에 그 축복의 흐름의 근원이 있었고, 그것은 생명수처럼 14세기 이래로 시대를 거쳐 흘러왔다. 와이클리프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영감으로 계시된 책이자 신앙과 실천의 충분한 규범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로마 교회를 신적이고 무오한 권위로 여기도록 교육받았고, 천 년 동안 확립된 교리와 관습을 의문 없이 경외하며 받아들이도록 배웠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하라고 촉구한 권위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교황을 통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유일한 참된 권위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한 책일 뿐 아니라 그 유일한 해석자는 성령이시며,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침을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황과 로마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았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다. 지성의 폭넓음과 사고의 명료함, 진리를 견지하는 굳건함과 그것을 수호하는 담대함에 있어 그는 이후에 등장한 이들 가운데 그에 견줄 만한 이가 거의 없었다. 삶의 순결, 학문과 노동에서의 지칠 줄 모르는 근면, 부패를 모르는 청렴, 그리고 사역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신실함은 이 선구적 종교개혁자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적 암흑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시대에서 나왔음에도 그러했다.

위클리프의 품성은 성경이 지닌 교육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증거이다. 그를 그가 되게 한 것은 성경이었다. 계시의 위대한 진리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모든 능력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것은 사고를 넓히고, 지각을 예리하게 하며, 판단을 성숙하게 한다.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열망을 고상하게 한다. 그것은 목적의 확고함과 인내, 용기, 굳건함을 주며, 품성을 정련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 진지하고 경건한 성경 연구는 학생의 마음을 무한하신 마음과 직접 맞닿게 하여, 인간 철학이 제공하는 가장 뛰어난 훈련이 낳은 것보다도 더 강하고 더 활동적인 지성, 그리고 더 고상한 원칙을 지닌 사람들을 세상에 내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119:130. 대쟁투, 93, 94.

The Great Controversy에서 존 위클리프에 관한 증언에 이어, 화이트 자매는 신실한 개혁자들(waymarks)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그 목록은 결국 개혁자 존 녹스에 이른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존 녹스에게 던진 중대한 질문을 지적한다.

존 녹스는 교회의 전통과 신비주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양식으로 삼았고, 위샤트의 가르침은 그가 로마 교회와의 교제를 버리고 박해받는 개혁자들에게 합류하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 . .

"스코틀랜드의 여왕과 대면했을 때, 그 앞에서는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열정이 누그러지곤 했으나, 존 녹스는 진리를 위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증언했다. 그는 아침으로도 회유되지 않았고, 위협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여왕은 그를 이단으로 고발했다. 그는 국가가 금지한 종교를 받아들일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민에게 군주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이에 녹스는 단호히 대답했다. '참된 종교는 그 기원도 권위도 군주들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신민들이 군주의 기호에 따라 자기 종교를 형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개 다른 누구보다도 군주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교에 가장 무지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오랫동안 신민이었던 바로의 종교를 따랐다면, 문건대 폐하,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들의 종교를 따랐다면, 문건대 폐하, 지금 이 땅에 어떤 종교가 남아 있겠습니까? ... 그러므로, 폐하, 비록 신민들에게 군주를 공경하라고 명령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군주의 종교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리는 말했다. "당신은 성경을 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들[로마 가톨릭 교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개혁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는 둘 중 어느 것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분명하며, 어느 한 곳이라도 모호함이 있다면, 결코 스스로와 모순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더 분명히 설명해 주시므로, 완고하게 무지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의심이 남을 수 없다." 두려움을 모르는 그 개혁자가 목숨을 걸고 왕의 귀에 대고 말한 진리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 그는 같은 두려움 없는 용기로 자신의 목적을 굳게 지키며, 기도하고 주의 전쟁을 치르기를, 스코틀랜드가 교황주의에서 자유롭게 될 때까지 계속했다. 위대한 논쟁, 250, 251.

개혁자와 여왕의 상호작용은 종교개혁 역사에서 세 번째 흐름을 부각한다. 그 흐름은 성경과 개혁자들, 그리고 성경 연구 방법론을 위조하려는 사탄의 시도를 지목한다. 존이 여왕에게 한 대답은 올바른 방법론이 '역사주의'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성령께서 한 줄기의 예언적 역사를 다른 줄기의 예언적 역사로 설명하신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혀졌다. 위클리프와 초기 종교개혁가들로부터 밀러파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주의'라 불리는 성경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성경 연구 방법의 역사는 종종 간과되지만, 밀러가 채택했고 이후에는 Future for America가 채택한 예언 해석 규칙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이트 자매가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백성으로 지목한 교회는 오직 두 교회뿐이다. 곧 고대 이스라엘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유들은 거듭거듭 되풀이되어야 한다. 신명기 4:1-13" 원고 발표집, 제8권, 426쪽.

사도들의 교회와 교황권의 암흑기 동안 광야에 있던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백성'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용어('이름을 부여받은'이라는 뜻)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보관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교회를 가리키며, 재림운동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적 진리까지도 맡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교회를 불러 이 땅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그분은 진리의 강력한 도끼,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그분 자신께 거룩하게 가까이 오도록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율법을 맡은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옛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신탁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거룩한 신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리인으로 나아가 온 세상 방방곡곡에 경고를 울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증언 5권, 455쪽.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의 예언적 진리를 열어 보이도록 선택된 사자를 대표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이 1844년에 한 백성을 지성소의 열린 문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셨다. 와이클리프는 성경을 열어 보이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낳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이며, 동시에 그는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확립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정표이다. 존 와이클리프는 교황권의 1,260년 통치의 역사에서 "새벽별"로 지목되었다. 그의 사역은 14세기에 시작되었고, 이어 17세기에는 그 예언적 계보의 또 다른 이정표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다. 그 선상에서 우리는 결국 밀러의 예언 해석 규칙이라는 이정표에 이르게 된다. 밀러는 그 진리의 선상에서 하나의 이정표이며, 그의 규칙들도 마찬가지다. 그의 규칙들은 "Prophetic Keys"의 출간으로 대표되는 재림운동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이정표를 증거한다.

우리가 밀러의 규칙이 성경의 원전과 정확한 본문을 보존하는 사역과, 또한 성경의 참된 이해를 열어 가는 사역을 대표하는 예언적 역사선상의 이정표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그 참된 이해의 개방이 개혁자들이 '역사주의'라 불리는 거룩한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인도받는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림운동의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의 빛을 제시하고 보존하는 사역과 관련된 예언적 진리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역사선을 간략히 개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신교도'라는 단어의 유일한 진정한 정의는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가 로마에 대한 항거를 멈추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니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인들처럼 로마의 딸이 된다.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개신교인들의 '표어'가 된 가장 핵심적인 이해는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성경이 올바르게 분별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라. 그것들은 더 큰 불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15, 16.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는 노력 속에서 개신교도들이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성경 연구 방법은 "역사주의"였다. 그 방법은 사탄이 특별히 지목한 중대한 공격 대상이 되었고, 사탄은 실제로 그것을 공격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의 원칙, 곧 최고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1888년 자료, 403.

윌리엄 밀러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한 성경 해석 방법론을 약화시키는 일은, 미래주의 해석을 대중화한 것으로 알려진 예수회 학자 프란시스코 리베라(1537-1591)와 함께 15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된다. 그는 예언을 역사적 맥락에서 떼어내어 미래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집필했다. 리베라는 역사주의 방법론이 항상 도출하던 진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론을 고안했다. 그 진리는 로마 교황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었다.

17세기와 18세기에, 리베라의 그릇된 방법론이 사탄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개신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된다. 그 시기의 개신교도들은 그 예수회 학자의 '불경하고 헛된 잡담'에 맞서 책과 소책자를 저술했다. 그러나 1909년에 '트로이의 목마'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출판되었고, 성경 각주에 삽입된 주석들은 리베라와 마누엘 라쿤사(1731-1801)라는 또 다른 예수회원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었다. 라쿤사는 후안 요사파트 베네즈라라는 필명으로 집필했으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그 이전의 리베라와 마찬가지로, 그 책은 요한계시록의 예언 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사탄은 자신이 혼란으로 뒤덮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임을 알고 있었다. 두 예수회 신부의 속되고 헛된 말들을 스코필드 관주성경의 주석과 관주 속에 끼워 넣음으로써, 사탄은 배교한 개신교인들이 예수회의 방법론을 받아들일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그들을 진리에 대해 눈멀게 했다. 사탄은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몇 가지 가톨릭의 예언 모델들을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사탄에게 어려운 속임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개신교인들은 이미 1843년에 밀러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로마 교회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처음 몇 세기부터 시작된 사탄의 성경에 대한 공격을 기록한 책과 기사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럿 출간되었다. 그 공격은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위조 사본들이 유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도록 일으켜 세워진 종교개혁자들을 그들이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그들이 죽은 뒤에도 공격했다.

현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윌리엄 밀러라는 인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마치 그의 유골을 파내어 미시시피 강에 던져 버린

것과 같다.

윌리엄 밀러는 사탄의 나라를 교란하고 있었고, 그 대적은 그 기별의 효과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그 전달자 자신을 멸하려 하였다. 아버지 밀러가 성경의 진리를 청중들의 마음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랐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분노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향해 격발되었던 것과 같았다. 교인들이 저급한 계층을 선동하였고, 여러 차례 그가 집회 장소를 떠날 즈음에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인파 속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 중 하나가 사람의 모습으로 주의 종의 팔을 붙잡아 분노한 폭도들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냈다. 그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그들의 목적이 좌절되어 실망하였다. 예언의 영, 4권, 219쪽.

재림교 내의 바로 그 두 부류(신학자들과 역사가들)가 화이트 자매가 실제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 밀러의 규칙의 타당성을 어떻게 폄하하고 은폐해 왔는지 보라.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은 밀러가 채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예언들과 예언적 연대기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작은 책에서 밀러는 성경 연구와 해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고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규칙 1부터 5까지 인용됨.]

"위의 내용은 이 규칙들의 일부이며,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 모두는 제시된 원칙들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4년 11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의 발전과 확립과 관련된 예언적 역사의 세 가지 줄기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윌리엄 밀러가 자신의 기별을 제시함에 있어 엘리야로 표상된 전령이며, 의인들의 부활 때 밀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에서는 모세로, 그리고 자신의 농장을 떠나 엘리야의 기별을 섬기려는 기꺼운 마음에서는 엘리사로 표상된다는 점을 지지하는 중대한 증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화이트 여사는 이 세 성경적 영웅 모두가 윌리엄 밀러를 예표한다고 밝히지만, 오늘날 재림교의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그를 마치 18세기의 그저 '가난한 농장 소년'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 양 대한다.

윌리엄 틴데일은 이 예언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으켜 세워진 많은 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가 상대했던 교황의 사절들을 겨냥한 그의 '사명 선언'은 "나는 쟁기를 모는 소년이 너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였다. 윌리엄 밀러는 쟁기를 몰던 농장 소년으로서 틴데일의 예언을 성취했다.

이 서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역사에 비하면 크게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의 몇 가지 표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밀러를 이정표이자 사자로서 다시금 고찰로 이끌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의 시작이다. 그 책의 끝은 요한계시록이다. 비록 서로 별개의 두 책이지만, 함께 하나의 책을 이룬다.

몇 년 전, 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총회 성경연구소에서 일하던 잘 알려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학자와 공개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그 신학자는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여섯 절에 대한 나의 이해와, 또한 다니엘서의 '상번제'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로잡으려 했다. 우리의 논의는 한동안에 걸쳐 이어졌는데, 그가 글을 하나 발표하면 내가 응답하고, 그러면 그가 다시 답하고, 이어서 내가 또 생각을 전하는 식으로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총회에서 자신이 속한 위원회에서 다니엘서 전문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한 동료는 요한계시록의 상주 전문가로 여겨진다고 내게 알려 주었다. 우리의 논의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의 쟁점들은 다루지 않고 동료에게 넘기려 했고, 토론을 다니엘서에만 한정하길 원했다.

화이트 여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한 권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들은 성경을 대표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책이 합쳐진 한 권의 책이다. 화이트 여사는 또한 오직 구약만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는 유대교에 대해 언급하며, 오직 신약만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만 하여 구약을 경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녀의 영감받은 증언은 신약만을 받아들이면 곧 구약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신학자가 자신은 다니엘서의 전문가이지만 계시록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약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관념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협소한 관점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에서 어느 한쪽만을 취하는 것, 곧 구약을 받아들이고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체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다.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나이다, 주여."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그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받은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은 자들의 책임을 제자들 앞에 제시하셨다. 그때 존재하던 성경은 구약뿐이었지만, 그것이 단지 옛 사람들만을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었고,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전하는 교사들이, 예언으로 미리 예고된 메시아로서의 그의 정체를 확증하고 세상에 대한 그의 사명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빛을 찾기 위하여 구약을 부지런히 탐구하기를 원하셨다. 구약과 신약은 나눌 수 없으니, 둘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오직 구약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교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의 생애와 사역으로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구세주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약을 버리는 이들의 교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은 구약을 폄하하는 데서 시작하고, 신약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데까지는 한 걸음뿐이어서, 결국 둘 다 거절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구속력 있는 법을 포함한 계명의 중요성을 그리스도교 세계에 보여 주는 데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옛 보화를 꺼내면서도,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담긴 새 보화는 내버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적 지혜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의 보화를 꺼내면서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전 가르침인 구약의 부요함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과 에덴 동산에서 제정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복음의 사역자는 구약과 신약 둘 다를 철저히 알게 되어, 둘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비추어 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서 그것들을 그 참된 빛 가운데 사람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보좌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 올 것이다." 예언의 영, 2권, 255쪽.

이전의 권면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들에게도 또 다른 적용점이 있다. 구약과 신약, 곧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것은 한 가지 증언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함정이다. 진리를 확립하려면 두 증인이 필요하므로 한 증인으로는 진리를 확립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는 자는 두 증인 모두를 거절하는 것이며, 소위 '반쪽 진리'에 자신의 신앙을 두는 것이다.

이제 2023년 7월부터 게재되어 온 초기 기사들 가운데 하나에 실렸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863년 이후 재림주의에서 어떤 새로운 빛이 나왔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이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리가 말한 비밀을 들었으나,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는 다니엘서가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임을 가리킨다. 다니엘서는 시작을, 요한계시록은 재림주의의 끝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지만, 또한 열린 책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가르침은 분명하며, 신비주의적이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다니엘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언의 맥락이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예언을 반복하셨는데, 이를 통해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주께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Manuscript Releases, 제9권, 8.

재림운동의 시작에, 재림운동의 중심 기둥이 되는 바로 그 성구들, 곧 1798년에 봉인이 풀린 그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모니', 곧 '기묘한 수를 세시는 분'으로 소개하셨다. 재림운동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놀라운 언어의 대가로 소개하신다. 이런 이유로, 재림운동의 시작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시간에 달려 있었다. 재림운동의 마지막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재림주의의 시작과 끝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므로, 미국의 시작과 끝 시기에 일어난다. 미국의 예언적 역사는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뿔의 역사이다. 그 역사의 결말에는 그 두 뿔이 어린양에서 용으로 바뀌게 된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고, 개신교는 배도한 개신교로 바뀔 것이다. 지금 그렇듯이, 미국에게 주어진 유예의 때가 끝나가면, 배도한 공화주의와 배도한 개신교라는 두 뿔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교회와 국가를 용처럼 말하는 하나의 뿔로 통합시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인 없이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미국을 결말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그분은 참된 개신교의 뿔을 일으켜 미국 안의 짐승의 우상과, 이어서 온 세상에 맞서는 짐승의

우상 모두에 반대하도록 하실 것이다. 미국의 끝에 개신교의 뿔이 일으켜지는 것은 미국의 시작에서 개신교의 뿔이 일으켜졌던 것과 같은 역사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의 언약 백성은 지나쳐지고, 새로운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헤아래 새 것이 없다.

밀러파 역사에서 이해되고 제시된 시간 예언들을 사용해 알파와 오메가를 검토해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임을 알게 된다. 모든 시간 예언은 그 예언이 선포될 때의 역사에서 시작하며, 그 역사는 항상 그 예언이 성취될 때의 역사를 예표한다.

이천삼백 년의 예언의 역사는 기원전 457년에 내려진 세 번째 칙령에서 시작하여 1844년 10월 22일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끝났다. 세 번째 칙령이 내려지기 이전, 그에 이르기까지 성전과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완수되었다. 이와 같이 셋째 천사가 도래하기까지의 역사에서도 밀러라이트의 성전에 관한 기초 진리들이 확립되었다.

1798년에, 북방 열 지파의 흠어짐과 함께 기원전 723년에 시작된 2520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은 두 개의 1260년 기간을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이교 로마가 문자적 성전과 문자적 예루살렘을 짓밟는 기간이었고, 이어서 교황 로마가 영적 도성과 성전을 짓밟는 1260년이 뒤따랐다. 그 예언은 북왕국의 멸망과 그 백성의 흠어짐으로 시작되었다. 예언의 중간 지점인 538년은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인 이교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때의 끝을 알렸고, 하나님의 교회가 암흑시대의 광야로 흠어지게 되는 일을 초래했다. 그 시간 예언의 끝인 1798년은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의 종말을 가리킨다. 북방 열 지파의 흠어짐과 광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흠어짐은 장차 개신교의 뿔이 될 자들의 모아짐을 나타낸다. 이정표들은 종종 반대되는 것으로 표상되며, 엘리야가 세레 요한을 표상하듯 흠어짐이 모아짐을 표상할 수 있다. 같은 예언적 대결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지만, 세레 요한은 죽는다.

기원전 677년에 남쪽의 유다 지파(성경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도 지칭됨)는 2,520년 동안 흠어졌으며, 이는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며,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 13, 14절에서 그들을 '군대'라고 부른다.

그때 나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그 거룩한 이에게 이르되, '항상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군대를 내주어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얼마 동안 계속되겠느냐?' 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기원전 677년에 시작된 2,520년의 예언과 동시에 끝난 2,300년의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3, 14절에 언급된 성소의 짓밟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기원전 677년의 유다의 흠어짐에 대한 예언에 앞서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 공격이 있었고, 그 예언은 1844년 10월 22일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함과 함께 끝났다.

각각 1798년과 1844년에 끝나는 두 개의 2,520년 예언은 밀러파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46년을 가리킨다. 모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를 받는 데 46일을 보냈고, 그리스도 시대에 헤롯의 성전 개축은 46년이 걸렸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해에 끝났다. 세례를 받으신 뒤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로 가셨고, 돌아오셨을 때 처음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으며, 그러자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그분이 그런 일을 무슨 권위로

행하느냐고 물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작은 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두를, 곧 양과 소까지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상을 엮으셨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 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그것을 세우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이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13-22

밀러파 성전은 첫 번째 2520년 예언이 마무리된 1798년부터 46년에 걸쳐 세워졌고, 46년 뒤 두 번째 2520년 예언이 성취된 1844년에 끝났습니다. 그 46년은 첫째 천사의 도래로 시작되어 셋째 천사의 도래로 끝났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이 사흘 만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고하고 회심하지 않은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문제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예언의 말씀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록된 상징적 표현들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은 끝을 가리키며, 그것들은 단순히 반복되는 역사 이상의 것을 언제나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며, 몸이라는 성전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46개의 염색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23개의 남성 염색체와 23개의 여성 염색체가 십자가 모양의 단백질에 감겨 있다고 알려 줍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기간 예언이 있으며, 첫째는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흠어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의미한다. 거룩한 백성에게 이루어진 그 권세의 흠어짐은 2,520년이었으나,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 기간의 후반부만을 언급한다. 또한 그 선언의 의미를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라 하며,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지게 하기를 마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은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 12:7, 8.

다니엘서 12장은 끝의 때, 곧 1798년에 봉인이 풀리는 기별을 보여준다. 그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역사에서 지혜로운 자들의 주된 상징인 윌리엄 밀러를 대표한다. 밀러는

먼저 레위기 26장의 2520년 예언으로 인도되었고, 7절과 8절에서 그는 2520년의 흠어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흠으신 것으로 식별되어 있음을 그 진리를 조화시켜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한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일곱 배 더 벌하리라. 내가 또 너희 권세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리라. 레위기 26:18, 19.

고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선택하도록 허락받았을 때였다. 넘어짐을 막는 그들의 교만(잠언 16:18)은 그들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왕국들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먼저 북왕국을, 이어 남왕국을 제거하신 것은 각각 기원전 723년과 677년에 권세(왕)를 흠으신 일이었다.

밀러는 다니엘서 12장의 앞선 절들에서 봉함이 풀려 지식이 증가한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했으며, 7절과 8절에서는 다니엘이 1,260년과, 하나님의 백성의 흠어짐을 가리키는 2,520년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니엘은 재림운동의 시작에서의 밀러와 마찬가지로, 재림운동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재림운동의 끝에서도 같은 딜레마가 존재하는데, 재림운동이 밀러의 '일곱 때'에 대한 이해를 제쳐두었기 때문에 1,260년만을 암흑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말세의 지혜로운 자들도 다니엘과 밀러가 보여 주듯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왜 레위기 26장의 용어가 일곱 때가 아니라 한 때, 두 때, 반 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가?

밀러는 이 딜레마를 끝내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1856년에 마지막 "새로운 예언적 빛"이 완결되지 못한 여섯 편의 연재 기사에서 제시되었고, 그 연재는 "일곱 때"를 이교 로마가 하나님의 문자적 이스라엘을 짓밟는 3년 반과 이어 교황 로마가 영적 이스라엘을 짓밟는 3년 반으로 규정했다. 7년 뒤 재림주의는 "일곱 때"의 모든 빛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1989년 종말의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 딜레마를 예비했다. 그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구소련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교황권과 미국에 의해 쓸려나갔다.

밀러에게 주어진 첫 빛은 1863년에 거절되었고, 그 주제에 관한 마지막 빛은 그 여섯 편의 글에서 히람 에드슨에 의해 주어졌다. 그 글들은 중단되었고, 7년(일곱 때) 뒤에 몇 해 전에 바벨론의 딸들로 정확히 규정되었던 우상숭배하는 교회들을 모방하기 위해 현대 이스라엘의 권세가 제쳐졌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라는 예언 교리는 걸림돌이 되었고, 사울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들의 욕망으로 대표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교만이 반복되었다. 예수님은 시작으로 끝을 나타내신다.

다니엘서는 508년에 'the daily'가 제거되는 때에 시작하는 1290년의 예언과 1335년의 예언을 함께 밝힌다. 'the daily'의 제거는 538년에 교황권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이교 로마의 저항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538년에 교황권이 땅의 보좌에 오르기 전에 30년의 과도기가 있었고, 그 후 남은 1260년은 1798년에 끝난다. 한 왕국에서 다음 왕국으로 넘어가는 30년의 과도기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1798년에 땅의 보좌에 오르게 되는 데 이르게 하는 교황 통치의 마지막 해들을 가리킨다. 1290년 예언의 시작은 성경 예언의 한 왕국에서 다음 왕국으로의 전환을 가리키며, 그 예언의 끝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환을 가리킨다.

508년에 'the daily'가 제거될 때 시작된 1335년간의 예언은 1843년에 끝난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 12:11, 12.

1,335년의 예언은 1843년에 끝났으며, 다니엘은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화이트 자매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1843년과 1844년에 목격된 것들을 본 눈은 복이 있도다.

그 기별이 주어졌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므로 그 기별을 반복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머지않아 한 기별이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큰 소리 외침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 분깃에 서서 증거할 것이다. 원고 발표집, 21권, 437쪽.

그러므로 1,335년 예언의 시작은 이교에서 교황주의로의 종교적 전환을 가리키며, 따라서 개신교에서 밀러파 개신교로의 전환 또한 가리킨다.

재림교의 근본 진리들을 거부하는 재림교인들은 밀러파가 제시한 모든 시한예언, 심지어 다니엘 8장 14절의 이천삼백 년까지도 거부한다. 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이 참임은 논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다르므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 논의는 잠시 접어두겠다.

기원전 677년에 유다의 '영화로운 땅'이 흩어졌다는 것은 다니엘 8장 13, 14절에 나오는 '군대'의 짓밟힘을 상징하며, 또한 현대의 '영화로운 땅', 곧 미국의 건국을 가리킨다. 같은 구절의 2300년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성소'의 짓밟힘을 의미한다.

그때 나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그 거룩한 이에게 이르되, '항상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군대를 내주어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얼마 동안 계속되겠느냐?' 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기원전 677년과 기원전 457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1844년 10월 22일에 무리와 성소를 동시에 다시 하나로 모으셨다. 기원전 677년과 기원전 457년 사이의 220년은 하나님이 빛의 증가를 나타내는 이정표를 세우시는 시기를 상징한다.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의 빛이 임했고, 성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그 빛을 선포할 무리가 있었다.

사탄과 그리스도가 벌인 삼중의 전쟁을 식별하는 예언적 선상에서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이 간행되었다. 정확히 220년 뒤인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처음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9년 동안 윌리엄 밀러는 자신의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확신했으나, 그는 곧 오실 구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어떤 인정받는 권위자가 선포해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이렇게 기다림으로써 그는 오히려 그 메시지의 진실함을 입증했다; 그들에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은 급속히 죽어가고 있었다. 1831년에 밀러는 예언에 관한 첫 설교를 했다." 스티븐 해스켈, 밧모의 선견자, 77.

하나님은 성경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된 거룩하고 정확한 원전들을 보호하셨다. 그분은 이어 1611년에 자신의 성경을 내셨다. 그 후 그분은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도출되고, 확립된 규칙들을 적용하여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도출할 사자를 일으키셨다. 1831년에 밀러의 메시지가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그 메시지가 공식화되었던 것과 같으며, 모든 개혁 운동에서 메시지가 공식화되어 온 것과도 같다.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인 밀러의 메시지는 220년의 예언적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뒷받침된다. 그것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 즉 미국이 시작될 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였다.

1996년에 퓨처 포 아메리카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셋째 천사의 기별, 곧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의 치유와 임박한 일요일 법령을 밝히는 기별이 '끝의 때'라는 제목의 잡지에 실렸다. 재림운동의 끝에 주어진 기별은 시작 때의 기별이 체계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계화되었다. 시작 때의 기별은 시간에 기초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의 더욱 발전된 전개를 나타냈다. 1776년 미국의 탄생 이후 220년이 지난 1996년에, 재림운동의 끝에 주어진 기별은 체계화되었고 세 천사의 기별의 더욱 발전된 전개를 나타냈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사에서 공화주의의 뿔과 개신교의 뿔의 병행 역사를 다루면서, 개신교의 뿔이 누구를 가리키며 또 누구를 가리키지 않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라. 그것들은 더 큰 불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15, 16.